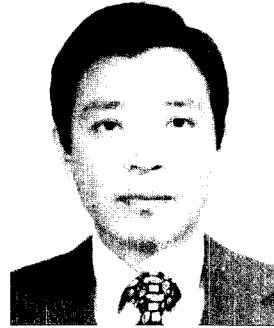




돌담길 따라

金亨徹

(本協會報編輯委員)
(環境庁計劃調整局長)



近世史의 애뜻함과 都心人의 追憶과 젊음의 浪漫이 너울거리며 어울져 흐르는 덕수궁 돌담길을 매일 지나는 幸福을 누리는 것도 環境 德이요 環境廳 德이다.

確實히 環境廳은 서울都心으로서는 드물게 좋은 環境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따금 집없는 설움을 달래야 하는 때도 있지만 環境을 가꾸고 지키면 幸福해진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國民의 無言의 責叱질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된다.

環境廳을 찾게되는 民願人, 專門人 심지어 外國人까지도 정말 環境廳다운 곳에 자리잡았다고 한마디씩 건네곤 한다. 그럴때마다 과연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종종 속으로 좌스러워지기도 한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 哲人의 名言도 環境을 두고 한 말이라. 그것이 哲學思想을 展開하기 위한 序論이라 하더라도 市井人이 쉽게 共感하게 되는 것은 모든 人間이 環境을 쉽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 環境속에서 그 자신이 環境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環境은 그렇기 때문에 人間生活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 環境의 惡化는 生活의 惡化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제 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가는 環境保소를 經濟發展에 못지않은 重要한 課業으로 하고 있으며, 國民의 環境改善에의 기대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高潮되어 있다는 것은 비단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 모두의 소망을 어깨에 걸고 행정의 일선에서, 기업체의 현장에서 뛰고 다투며 매일매일의 덧없는 흐름을 아쉬워하는 우리들은 때로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머리를 썩히는가 하면 때로는 현장에서 함께 걱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그러한 業務를 연장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이 돌담길을 지나면 그러한 업무적인 피로움은 한순간 없어지고 오직 그 어떤 아련한 充滿感만 느껴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확실히 돌담길은 環境이다. 쌓아 올린 돌과 돌 사이에 고색창연한 蕪木이 엉켜있듯이 먼지와 그늘음이 범벅되어 있지만, 먼지와 그늘음 대신에 靑苔가 끼이지 말라는 법은 없다. 높다란 울타리의 추녀와 추녀를 잇는 담기와 위에 소복히 내려앉은 흰눈은 금새 회색의 도시빛으로 물들어 버리지만 그것이 흘러내려 고드름이 된 뒤에 그 밑을 지나는 발랄한 한쌍의 戀人이 「둘이바」 대신에 이것을 먹고

더욱 발달해지게 할 수도 있다. 路上駐車場에 세웠던 “서울가”가 후진하면서
 울리는 後進音이 진짜 “엘리자를 위하여”로 들려오게 되는 것도 우리의 努力과
 時間問題일 뿐이다. 가을날 우수수 떨어지는 落葉, 겨울밤 鋪道위를 휩쓸며 날리
 는 종이부스러기, 봄날 봄비속에 엉겨내리는 汚物, 여름밤 地檢 옆 쓰레기 積置場
 앞에 放尿하는 神仙이 다 되신 아저씨, 높다란 미류나무 꼭대기에 틀어놓은 까치
 집, 그 너머로 보이는 우중충한 건물과 유난히 대조를 이룬채 빠끔히 뚫린 파란 하
 늘, 이러한 모든 것은 環境이요, 우리의 관심이며, 골치이고 또한 우리의 스승이
 다. 업무의 길잡이요 채찍이며 생활의 교과서다.

자리가 좋은 덕택에 옛날 같으면 모처럼 한여름밤이나 되어야 볼 수 있는 아베
 크 쌍쌍을 대낮 창문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낮의 아베크는 浪漫이
 없다는 浪漫派의 批評(?)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못본것
 보다는 훨씬 좋다. 우선 觀覽料 없어서 좋고, 길에 나서야 하는 足跡이 없고 비
 록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이 유난히 빛나는 것같이 보여서 좋다. 소
 화도 그때보다 더 잘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기가 그 연인들이 샘나서 시집을 부
 람부람 간 여직원이 있다는 풍문도 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늦게, 어떤 때는 새벽 한두시쯤 되어서야 일손을 멈추고 부
 득이 잘 수 밖에 없어서 집에 들어가게 될때에는 좋다는 얘기는 달라진다.

초저녁, 시장가가 들면서 그것을 잊을 때까지는 짜증기, 이때에 직원들 상호간
 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엘리자의 비명”도 뜸해지고
 점차로 적막이 감도는 가운데 직원들의 일을 가지고 의논하는 도란거림이 적당한
 중압감을 준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리의 가수가 부르짖는
 비틀거리는 “번지없는 酒幕”은 이러한 중압감을 일시에 깨트리는 하품과 같은 웃
 음을 몰아온다. 이때까지가 작업기이며, 작업기에서 주섬주섬기로의 轉換은 전광석
 화와 같다. 여기까지는 좋다는 얘기는 주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한두시에 길거리
 에 나섰을 때에는 온통 별천지가 된다.

추운 겨울밤 한두시의 아베크는 어떤가? 전에는 通禁 때문에 있을 수 없었겠
 지만 지금은 통금도 없다. 추위 따위가 뭐야? 뜨거움이 무력무력 김나는데. 역
 시 좋다. 돌담길은! 그러나 가끔 “뜨거운 것이 좋아”가 아니라 “그러면 안돼 안
 돼” “봐서는 안돼 안돼”도 적잖다. 종구나 하는 생각과 은근히 고개를 드는 누
 구에게 향한 것인지도 알수 없이 치미는 빨대, 역시 이때는 좋지만은 않은 氣分!

環境하는 이들이여! 돌담길을 걸어보자. 밤이나 낮이나, 발로나 머리로나 때
 로는 차로라도!

거기에는 環境이 죽어가고 있으며, 환경이 몸부림치고 있으며, 환경이 숨을 할
 딱거리고 있으며, 환경이 용솟음치고 있으며, 환경이 希望의 나래를 펴고 紫雲을
 향해 飛翔하고 있으며, 環境의 스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環境이여! 同志여!

이시럼 부디갈다 아니가든 못할소나
 무단히 네 슬터냐 남의 권을 들었는나
 그러도 하 애닭고나 가는 뜻을 일러라 (宣祖)

**